

2015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왕국의 실재 안에서의 생활

메시지 1

생명의 느낌에 따라 우리의 영의 직감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아래서 생활함

성경: 요 3:3, 5, 15, 고전 2:11, 엡 4:18, 롬 8:6

- I.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자신이다 — 막 1:15, 마 6:33, 요 3:3.
 - A.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을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 하나님 자신은 내용으로서 그분의 왕국의 모든 것이시다 — 고전 4:20, 15:28.
 - B.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이 생명은 신성한 생명의 본성과 역량과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형성한다 — 엡 4:18, 요 3:15.
 - C.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왕국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우리는 반드시 기본적인 이 원칙을 보아야 한다 — 요 3:3, 5, 15.
 - D. 하나님의 왕국의 본성은 신성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이다.
 - E. 실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생명에 속한 생득적인 역량에 속한 문제이다 — 롬 8:2.
- II.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이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일하고 다스리며 지배하기 위한 신성한 생명의 영역이다 — 마 6:13 하, 요 3:3, 5, 15-16.
 - A.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하여 생명의 영역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유기체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에 의해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이신 그분 자신을 표현하신다 — 요 3:5, 15:1-8, 16, 26.
 - B.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 요 3:5, 15, 요일 5:11-12.
 - C.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신성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기 때문에 거듭남은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이다 — 요 3:3, 5, 15.
- III.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간 이들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에 속한 직감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도록 회복되어야 한다 — 마 5:3, 고전 2:11, 막 2:8.
 - A. 무죄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을 본다. 양심의 시대에서는 자아의 다스림의 원칙을 보고 인간 정부의 시대에서는 사람의 다스림의 원칙을 본다.
 1. 타락 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았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있었다 — 창 2:16-17.
 2.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사람 속에 양심을 확립하셨다 — 행 24:16.

3. 홍수 후에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지도 않고 자신의 통치에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다 — 창 9:6, 롬 13:1.
- B. 통치의 관점에서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자신의 통치로,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통치에서 사람의 다스림으로 타락한 것이다.
- C.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인간의 통치로 하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를 인간의 통치에서 신성한 통치로 회복하시어 사람이 다시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 아래 살도록 하셔야 한다 — 마 5:3, 8, 6:33.
- D.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 안에서 사람은 반드시 인간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까지, 그 사이에 자신의 통치를 통과하여 자신의 발자취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 E. 양심을 처리하는 것의 최종 목표는 단지 우리를 자신의 통치로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 자신께로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마 5:3.
- F. 자신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1. 자신의 통치는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우리의 양심의 느낌에 의해 사는 것을 의미한다 — 행 24:16.
 2.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우리의 영에 속한 직감에 의해 사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직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즉 하나님께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 a. 우리의 영 안에는 사물을 깨닫고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직감이다 — 고전 2:11, 막 2:8.
 - (1) 직감은 하나님에 속한 직접적인 느낌이며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다.
 - (2)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직감은 하나님의 느낌이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속하고, 영에 속하며 생명에 속한 것만을 받아들인다 — 롬 8:2.
 - b. 우리가 우리의 직감에 의해 살고 우리의 직감에 의해 통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는다.
- IV.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느낌에 따라 우리의 영의 직감에 의해 산다 — 롬 8:6.**
- A. 신성한 생명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강하며 가장 예민한 느낌을 가진 가장 높은 생명이다(엡 4:18). 이 느낌이 생명의 느낌이다.
- B. 생명의 느낌은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사는지 아니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사는지,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사는지 아니면 그 영 안에서 사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게 한다 — 롬 8:6.
- C. 생명의 느낌은 우리를 안내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며 인도한다 — 롬 8:4.
- D. 우리는 평안, 안식, 강함, 만족, 해방, 생생함, 적셔짐, 밝음, 위로 등의 긍정적인 느낌들을 가진 생명의 느낌에 의해 하나님의 왕국의 실재 안에서 산다 — 롬 8:6.
- E.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왕국을 안다 — 요 3:3, 5-6, 15.
- F. 하나님의 왕국은 그 실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실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아래서의 신성한 생명에 속한 생활이다 — 마 5:3, 8, 20, 6:33, 7:21.